

1예매 34만명 2압표 20만원 3관람료 인상

예매율 82%↑ 일주일 전부터 돌풍 인기 아이맥스상영관 ‘압표’ 극성 멀티플렉스 3사 스크린 밀어주기 대작 개봉 맞춰 1000원 인상 논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기세가 예상대로다. 예매율 고공행진 속에 새로운 흥행기록을 향한 기대가 상당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압표까지 등장했다. 극장 측 움직임도 빠르다. 대규모 관객 유입을 예상한 극장들이 저마다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다. 올해 최대 기대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 극장이 풍경이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어벤져스3’) 개봉을 일주일 앞둔 18일 오후 2시 현재 예매율(입장권통합전산망)은 82.2%까지 치솟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객은 벌써 34만 명을 넘어서었다. ‘열풍’을 넘어 ‘돌풍’을 예고한다.

이미 아이맥스 스크린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주요 상영관의 ‘명당’ 좌석은 모두 매진이다. 개봉 첫 날은 물론 첫 주말에도 주요 상영관의 티켓은 품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온라인 거래사이트에는 용산CGV 아이맥스스크린 등 관객들이 블루버스터 관람에서 특히 선호하는 상영관 티켓이 10만원에서 20만원대 가격의 압표가 등장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듯 온라인에서는 입장권에 대한 문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불법 거래이지만 ‘어벤져스3’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제인들도 ‘어벤져스3’를

수익 창출의 최대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같은 날 개봉하는 ‘당갈’ 등 다른 영화들보다 먼저 예매를 시작해 예매율 80% 기록을 이끌어냈다. 극장들의 ‘어벤져스3’ 밀어주는 건 개봉 이후로도 지속돼, 상영관을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규모 관객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체 극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3사가 최근 일제히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다. CGV가 11일부터 관람료 1000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는 19일, 메가박스 는 27일부터 이를 따른다.

극장 체인들은 “물가 상승”을 관람료 인상의 주요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OGV를 예로 들면서 “5년 동안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이지만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물가 상승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격인상 시기가 하필 4월이란 사실에서, 인기 블록버스터 개봉 시기에 맞춰 관람료를 올렸다는 인상마저 짙게 풍긴다. 이번 ‘어벤져스3’는 히어로무비로는 유일하게 국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후속편이자, 막대한 팬덤을 자랑하는 마블스튜디오의 히어로 캐릭터 20여개가 총출동하는 작품. 히어로무비로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제기되면서 이에 맞춰 관람료를 인상한 극장체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故최은희

故최은희 안구 기증 세상 밝히고 떠나다

생전 기증 서약·장례 간소화 유언

고 최은희는 배우로서 극적인 삶뿐 아니라 그 인간적 파스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다. 19일 발인을 앞두고 생전 고인이 남긴 삶의 온기가 시선을 모은다.

고 최은희가 2010년 사후 안구 기증을 서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최은희는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사후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남편 신상욱 감독을 떠나보낸 뒤 이 같은 결심을 굳히고 실천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인은 생전 신 감독과 사이에 아이를 얻지 못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웠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친을 모시다 마지막 길을 임종한 신정균 감독이다.

이어 신 감독이 1970년대 말 배우 고 오수미와 사이에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결국 이 혼혈지만 이 두 자녀도 자신의 자녀로 들였다. 두 사람과 네 명의 자녀는 오수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지켜주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맏사위는 2006년 신 감독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간 이식을 해준 사실도 알려지면서 최은희가 지난 자식사랑의 깊이를 알게 했다.

16일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생전 간소한 장례 절차를 원했고 이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사실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가 한국영화계에 기여한 점에 비해 영화관계자들은 영화인장을 적극 검토하고 유족에게도 이를 권유했다. 하지만 결국 고인의 유언대로 간소한 가족장으로 19일 오전 발인하기로 했다.

고인은 경기도 안성 천주교 공원묘지에 영면한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1박2일 10주년’ 유일용 PD “목·금·토·일 밤샘…매주 설렌다”

2년전 바통터치, 분위기 유지 노력 세 멤버 영입 고려 실험 가치 충분 안보면 서운한 프로그램 만들겠다

KBS 2TV ‘1박2일’은 2007년 8월 방송을 시작해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예능’이란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만큼 시청자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연출자 유일용(39) PD는 10년의 세월이 ‘1박2일’을 “기다렸다 보는 건 아니지만 안 보면 서운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다.

유 PD는 전임 유호진 PD로부터 2년 전 바통을 건네받았다. “손가락 마디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유 PD는 현재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하며 ‘1박2일’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촬영, 편집, 시사가 있는 목·금·토·일요일은 거의 못 잔다.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사냐’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주 긴장되는데 적응되면 신기하게도 즐겁다. 이런 설렘이 ‘1박2일’인 것 같다.”

유 PD에게 ‘1박2일’의 PD라는 호칭은 “감사하지만, 무거운 짐”이다. 앞서 연출을 맡았던 나영석 PD, 유호진 PD가 잘 이끌었기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또 이미 ‘국민 예능’ 자리에 오른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

은 시청자들로부터 무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유 PD는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무엇을 더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 잔칫상을 망치지 않을까. 바꾸기보다 기존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집중했다. 지금도 부담은 크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비교될 것”이라며 웃었다.

유일용 PD는 어린시절 “시골 촌놈”으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유 PD가 2년 전 ‘1박2일’ 연출을 맡으면서 목표로 삼았던 ‘인간미가 느껴지는 예능’의 실현이다.

새로운 멤버 영입도 고려 중이다. 유 PD는 “현재 멤버들의 조화를 무너뜨릴 생각은 전혀 없다. ‘형제애’가 우선이다. 7명은 짝수일 때보다 팀 구성이 쉽지 않지만 실험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PD는 10주년을 맞아 3개의 특징을 준비했지만 한 편은 공개할 수 없다. 김주혁과 함께 멤버들의 여행을 계획했지만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에 담아뒀다.

“10년 넘게 방송되다보니 신기해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안 보면 서운한 감정? 프로그램 보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오르면 더 좋다. 이게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유일용 PD

한·일 동시에 홀리는 트와이스&여자친구

국내 정상의 두 걸그룹 트와이스와 여자친구 가 한·일 무대 ‘쌍끌이’에 나선다.

2015년 데뷔 동기로 국내 걸그룹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평가받는 트와이스와 여자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국내 활동은 물론 일본에서도 동시기 활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두 팀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9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왓 이즈 러브’ 발표와 동시에 ‘8연속 흥행’을 이어가는 트와이스는 각종 음원차트를 장악하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번 앨범은 사전주문량 35만장을 기록, 지난해 10월 첫 정규앨범의 사전주문량(33만장)을 넘어서 화제를 모았다. 또 데뷔 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매한 앨범의 누적 판매량이 220만장을 돌파하기도 했다.

트와이스와 마찬가지로 ‘무패 행진’ 중인

여자친구도 30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임 포 더 문 나이트’로 컴백한다. ‘유리구슬’로 데뷔해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등으로 사랑받은 이들은 ‘달의 요정들’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청순하고도 감성적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2015년 각종 연말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나눠가진 두 팀은 이듬해부터 비슷한 시기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두 팀은 다음달 일본에서도 동반 활동에 나선다. 트와이스는 5월13일 일본 세 번째 싱글 ‘웨이크 미 업’을 발표하고 투어를 시작한다. 같은 달 26~27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와 6월 2~3일 오사카성홀에서 총 4회 공연을 펼치고, 싱가포르 등지로 규모를 넓혀나간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데뷔한 후 일본 레코드

나란히 일본 앨범 발표 앞뒀 데뷔동기 힘 합쳐 영역 확장

협회에서 3연속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여자친구는 5월23일 일본에서 베스트 앨범을 발표하고 현지 시장에 정식 데뷔한다. 일본데뷔는 트와이스보다 1년가량 늦었지만, 데뷔전부터 현지의 꾸준한 관심을 받은 만큼 여자친구 역시 큰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는 지난달 기자회견과 프리미엄 쇼케이스, 매체 인터뷰 등을 소화했고, 데뷔 앨범 발표 후에도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시장에서 트와이스와 여자친구의 동반 활약이 예상되면서 소녀시대, 카라의 활약이 눈부셨던 2000년대 후반의 ‘케이팝 걸그룹 열풍’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리메이크 드라마 제목 결정 원작 색깔+국내 정서 고려

해외드라마를 리메이크할 때, 원작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부분 원제목 그대로 쓰지만 경우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 25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슈츠’와 3월 종영한 tvN ‘마더’는 각각 미국과 일본드라마 원제와 동일하다. 제작을 준비중인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런치의 여왕’ ‘최고의 이혼’도 원작인 일본드라마의 제목을 그대로 따른다. 앞서 국내에서 리메이크한 일본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꽃보다 남자’ ‘결혼 못하는 남자’ 등은 원제를 그대로 사용했다. 원제목에 대한 국내 시청자의 거부감이 크지 않았다. ‘꽃보다 남자’는 원작 만화 팬이 워낙 많아 제목을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됐다.

조인성과 송해교가 주연을 맡았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원작은 일본드라마 ‘사랑따윈 필요없어, 여름’이다. ‘수상한 가정부’는 ‘가정부 미타’, ‘파견의 품격’은 ‘직장의 신’, ‘드래곤 사쿠라’는 ‘공부의 신’으로 각각 변경해 국내에 공개됐다. MBC가 리메이크하는 일본드라마 ‘감사여 노자기’는 ‘더 뱅커’로 바꾸기로 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국내 방영 당사가 겨울이였기에 원제의 ‘여름’과는 거리가 멀어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수정했다. ‘수상한 가정부’와 ‘공부의 신’은 원작 제목에 일본어가 포함돼 있어 변경했다. ‘파견의 품격’의 경우, 파견이 우리나라의 계약직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드라마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꿨다.

김희애와 지진희가 주연했던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은 원작인 일본드라마 ‘최후로부터 두 번째 사랑’을 우리식 표현에 맞게 ‘윤색’한 사례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리메이크는 원작의 색깔 유지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창작물이기에 베낀 인상보다는 방영시기, 에피소드, 캐릭터 등 상황에 따라 제목은 원작자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백슬미 기자

#해시태그 컷



박하선 “다이어트, 성공적”

연기자 박하선이 다이어트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박하선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민소매에 스키니진을 입고 다양한 포즈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지난해 8월 딸을 낳고 8개월 만에 임신 전의 날씬한 몸매를 되찾은 자신감에 휴대폰 카메라 버튼을 마구 눌렀다. 그는 “몸무게 앞자리 4대로 진입. 웰컴 백, 25사이즈와 44사이즈”라며 기뻐한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박하선 #다이어트성공 #아기씨뽕매